

교육자의 실존적 의미 형성 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수료 조한글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생각하는 진리와 고백하는 진리, 그리고 살아가는 진리는 왜 분리된 채 각각일까? 언젠가부터 나에게서는 이러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은 하나여야 할 것만 같은데 내 삶의 실체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고민은 마치 무슨 질병과도 같이 느껴졌다. 발병의 원인과 치유책을 찾고 싶었지만 나는 어디가 아프는지조차 시원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 모호한 통증이 더 심해져 끔찍 앓고 있을 즈음, 분절된 삶의 조각들을 끌어안고 대학교 강단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미지의 여행을 떠나야 했다. 혼돈은 더 깊어졌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왜 가르쳐야 하는가? 가르치는 자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다. 파커 팔머(Parker Palmer)의 저서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2000)'을 만났다.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영혼의 오염을 하였다. 내가 어디가 아프는지 비로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나의 고통, 그것은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고통이었다. 진정한 자아의 중심에 있는 뿌리와 연결되고 싶은 고통, 자아와 자신이 하는 일을 연결시켜 인생을 걸어 나가고 싶은 고통, 분열되지 않는 자아를 찾고 싶은 고통이었다.

파커 팔머는(2005) 훌륭한 가르침은 하나의 테크닉으로 격하되지 않으며,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나오는 것이라 한다. 그에 의하면, 가르침의 변화는 교사의 마음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교사가 참된 가르침을 줄 수 있는데, 만약 자기 자신을 모른다면 자기 학생들이 누구인지 모르며, 학생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모르면 자신의 학과를 멀리 떨어져서 추상적으로 이해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구체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개념의 덩어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작업도 나르시스적인 작업도 아니며 훌륭한 가르침의 필수사항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자아의식과 마음은 어떻게 찾아지는가? 가르치는 자로서 나의 내면 풍경과 지형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나를 성찰하고 반성해야 했다.

그런데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알 수 있는가?

근대 이후 인식론적 측면에서 실증주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는 대상을 사실적 관찰로 파악할 수 있는 감각기관과, 그것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는 지성, 즉 증거와 이성이라는 규범에 부합하는 명제나 보고만을 인정한다. 모든 주관적 요소와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지식이 전적으로 실증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증적 패러다임은 주관적 진리로 인한 많은 오류와 병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였고, 우리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할 멋지고 많은 과학적 진보들을 후대에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실증주의는 그 어떤 인식 방법보다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인식론적 정당성을 확보해온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실의 영역이 강력한 제국주의로 성장하여 가치의 영역을 급격하게 식민지화하

고 있다는(피어시 낸시, 2006)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예컨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사는 목적은 무엇인가?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물음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직관, 공감, 감정, 느낌, 믿음, 관계, 영성 등 그 밖의 다른 역량들도 풍부한 존재이며, 우리의 삶에는 오성의 감각과 이성적 논리만으로는 잡아낼 수 없는 무수한 차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파커 팔머(2000)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많은 이들이 한쪽 눈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대개 지성(mind)의 눈에 의존해서 실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그러나 오늘날 점차 많은 이들이 다른 쪽 눈, 즉 지성의 눈은 보지 못하는 실재를 볼 수 있는 마음(heart)의 눈을 떠가고 있다. 우리에게 온전한 시각, 즉 두 눈이 하나가 되어 바라보듯이 지성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파커 팔머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이다. 나 역시 그의 말처럼 두 눈을 오가며 삶을 보아왔다. 한쪽 눈은 지식을 추구하는 지성의 눈이고, 다른 한쪽 눈은 마음을 추구하는 영성의 눈이다. 나는 지성을 버릴 수 없으며, 영성도 버릴 수 없다. 즉, 한쪽 눈을 감아버릴 수도, 두 눈을 전부 감아버릴 수도, 또한 흐릿함 속에서 살아갈 수도 없기에 두 눈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서야 했다. 만일 그러한 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오랫동안 질병처럼 앓아온 의문, 즉 생각하는 진리와 고백하는 진리, 그리고 살아가는 진리가 제각각 분리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만약 내게 그러한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애니 딜라드(2007)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그가 설령 미치광이이라 할지라도, 또한 백 개의 사막을 가로질러 맨발로 비틀거리며 가는 한이 있어도 그를 따르고 싶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나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많은 저항과 어려움에 부딪힐 각오를 해야 했다. 영성이란 사적인 취향 정도의 영역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요즘의 시대에 영성이라는 영역의 인식 방법을 찾아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인정하는 ‘지성의 실’을 씨실로, 보이지 않기에 알 수 없는 영역으로 규정되는 ‘영성의 실’을 날실로 삼아 천을 직조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었다. 지성과 영성이 크로스오버되는 그 직물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나는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 겁을 잔뜩 먹었다.

하이데거(1927/2008)의 말처럼 인간 존재의 본질은 끊임없이 자기 밖으로 나와 자신에게 존재의문을 던지고 재구성하는 실존에 있다. 즉,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존재 의문을 던지고, 재개념화하고, 살아내면서 ‘자신임’의 본질을 끊임없이 재형성해가는 되어감(becoming)의 존재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박세원, 2013). 인간은 궁극적으로 의미를 지향하는 의미적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 물음은 신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해답을 찾아갈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창1:27)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학문의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질감과 왜곡과 오해 없이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나의 세계관으로 어떻게 현 학문의 인식론과 방법론의 흐름과 연결하여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연구에 대한 의문들을 쫓아 우선 나는 ‘아는 것’에 대해 나는 무엇을 아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했다. 앞이란 무엇인가? 지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에 관한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한 철학적 학문, 즉 인식론을 만나게 되었다. 인식론적 흐름을 따

라 공부하게 되면서 생각에도 길이 있다는 것과, 내가 받은 객관주의적 교육의 폐해를 깨닫게 되었다. 나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누가 교과서를 더 잘 외우고, 사지선다식 선택형 문제를 더 정확히 풀어내는가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다. 왜? 라는 물음은 삭제된 채, 명확한 한 가지 답만이 옳았다. 음악과 미술과 무용시험에서조차 세상이 인정하는 공인된 느낌으로 학습하도록 강요받았다.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배움의 주체로서의 자리는 실종되었고, 비판적 사고는 배우지 못했다. 이같이 생활세계에서의 맥락은 배제되고 개인의 목소리를 제거한 인식론적 앎으로는 당연히 삶과는 분절될 수밖에 없음도 알게 되었다. 진리란 실재와 사실의 진술 만으로가 아니라 자신과 세계와의 살아 있는 관계에서도 발견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 바를 실천하는 주체로 설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점점 더 나를 아프게 파고들었다.

그러다가 인식론은 결국 어느 지점에 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실존적 영역, 존재론을 전제로 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다. 파커팔머(2000)는 지식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지식의 배후에 누구의 목소리가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즉, 아는 것은 믿음과 연계되어 있고,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것과 붙어 있으며, 따라서 앎(생각)과 믿음(고백)과 삶(실천)의 문제들은 서로 얽히고설켜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로슬라브 볼프(2012)에 의하면, 올바르게 아는 것은 눈과 귀와 지성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지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습관과 실천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비진리는 사고와 삶 모두를 사로잡기 때문에 단순히 바른 생각과 바른 말로는 극복할 수 없다. 즉, 진리하다라는 동사는 진리를 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모두를 아우른다(Bruce, 1984; 미로슬라브 볼프, 2012. 재인용). 결국 앎과 믿음과 삶은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해보이지만 그들 간에 통전성에 대한 문제는 나의 존재론적 지향의 실존성에 중요한 문제라 여겨졌다.

존재론적 지향의 실존성은 언명되기 힘든 부분이다. 이는 설명이나 제시의 방식보다는 서술과 설득, 공감을 통해 공유되기 쉽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서술과 공감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간다. 즉, 무엇을 규명하거나 증명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독자들에게 연구자인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독자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는 데에 관심이 있다. 다시 말해 교육자의 실존적 의미형성에 관한 한 해석을 내어 놓음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교육과 인간 존재에 관한 새로운 목소리와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은 이해를 확장시키고 또 다른 재해석을 시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 각 개인은 고유한 존재이다. 동일한 한국이라는 사회, 유사한 연령대의 문화 안에 속해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명약관화한 주관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경험과 ‘너’의 경험은 사회 문화적 공동체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것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의 경험은 독특성 안에 공유하는 역사를 이미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김소연, 정희숙, 2014). 이는 본 연구의 가능성을 여는 토대가 된다. 본 연구자의 실존적 의미를 찾는 과정에 대한 탐구는 한 교사의 체험을 넘어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존재적 물음 앞에는 누구나 떨 수밖에 없으며, ‘척’하고 사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여기’를 살아 고유한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염원이기 때문이리라.

나의 존재는 어디서부터 찾아지는가? 나의 실존은 영혼과 분리될 수 없다. 내 마음의 원천은 영적 세계로부터 기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 삶의 진경에서 나의 영성은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했다. 그런데 영성에 대한 실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나의 영성은

경건생활로부터 온다고 결론짓고, 그 경건생활의 양상은 어떠하며 나의 존재와 삶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했다. 그럼으로써 내가 궁구하는 삶과 믿음과 삶의 통전성에 대해 더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연구의 폭을 좁히기로 한다. 본 연구는 삶과 믿음과 삶의 통전성에 대한 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삶과 삶의 부분은 - 이론적 측면은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 다루지 않고, 믿음과 삶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갖는다.

첫째, 나의 경건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둘째, 나의 경건일기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셋째, 영성은 삶과 믿음과 삶의 통전적 차원에 어떠한 의미인가?

이러한 각각의 질문은 이 글 각각의 장과 연결된다. 즉, 이 글의 몸을 이루는 3. 4. 5장은 연구문제 첫째, 둘째, 셋째와 연결되며 이는 다시 월코트(Wolcott)의 기술, 분석, 해석 각각과 관련된다. 그에 따르면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보게(see) 하는 일이고, 분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understand) 하는 일이다. 이들은 연구 과정에서 순환적,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조용환, 1999). 나의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 분석, 해석하고 글로 쓰는 과정은 이를 엄두에 두고 이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질적연구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 진행되는데, 이를 질적연구 방법(method)이라고 한다. 질적연구 방법은 기법(technique)과 방법론(methodology) 두 가지로 구성된다. 기법은 질적연구자가 타인의 의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뜻한다. 그것은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 보고 등과 같은 일이다. 방법론은 질적연구자가 타인의 의미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연구자와 연구 대상의 존재, 연구와 안다는 것의 의미 등과 관련되어 있다(서근원, 2013).

(1) 연구 방법론을 찾아서

연구는 연구를 지배하는 패러다임 즉, 연구를 이끄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방법론적 전제를 형성하는 기본적 신념체제에 따라 달라진다. 나는 연구방법을 찾기 위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는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입장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아무 저항과 비판 없이 길들여진 내 인식의 백치에 절망했다. 그러나 이 체부터라도 쫓아야 했다. 그것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결국 인식론과 존재론적 문제로 고투해야 했으며, 이는 부단히 나를 허물고 나를 다시 지어야 하는 과정이었다.

나는 우선 근대적 접근에 반대했다. 근대주의자들은 객관성을 열망했으며, 하나의 정확한 방법을 사

용함으로써 상대주의를 잘라내고 진실의 빛이 밝게 빛나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주어진 문제에 관한 단 하나의 정확한 관점이 있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단 하나의 정확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untley(1995)에 의하면 의심할 수 없는 지식의 토대, 세상에 대한 완벽하게 명료한 해석 같은 것은 존재할 리가 없다. 우리의 언어는 모두 인간의 언어이며, 다양한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조건의 토양위에서 자라난 여러 방언들이다. 게다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진리는 세워질 수 없다(미로슬라브 볼프, 2012). 더구나 객관적 감각과 논리로 포착될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인식론은 나의 연구의 시작을 촉발한 저항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재란 사회적 작용으로 구성된 주관적 산물로 간주하며 이 세상에 유일한 일점의 진리는 없다고 보는 상대주의적 특징을 보인다. 확실하게 어떤 것들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부정하고, 객관적 혹은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가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 실체와 지식 그리고 가치는 담론에 의해 형성되며 따라서 그것들은 담론들과 더불어 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점의 진리이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나는 입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에서 해석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면서 질적연구방법이 대두하였다. 질적연구방법은 객관적인 결과 대신에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실재를 구성해 나가는 의미를 탐색하고 현상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이인경, 2006). 이러한 질적연구방법은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는 판단에는 망설임이 없었지만, 그러나 질적연구의 사상적 토대인 현상학을 만나게 되면서 모종의 인식론적인 혼란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후설에 의하면,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의 특성을 환언하면, '지향성(intentionality)'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의식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지향성을 중시하고, 이러한 의식 작용에 대한 해명을 통해서, 사상의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진호, 2010). 이는 우리가 우리를 통각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은 바로 그 운동을 중지시키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가담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라 보며 괄호를 치는 것이다(장유진, 2014).

그런데 나에게게는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것은 선입관이나 편견, 이데올로기, 개념, 어떤 신념체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종교도 포함된다고 생각되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현상학에서 말하는 '현상학적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으로 '본질직관'을 할 수 있을까? 종교적 신념을 지켜가면서도 자신의 선입관, 개념, 가치, 지식, 이론 등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현상을 볼 수 있을까?

그건 두려운 일이었다. 나의 연구에서 영성의 영역을 제거해버려야만 하는 것인가? 인식론적 혼선과 접점을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까마득함 앞에서 몸부림을 쳤다.

그러다가 점차 다음의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우선, 우리는 어디에도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전통과 관습의 강이 만나는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각기 다른 문화 안에, 전통 안에, 이익집단 안에 서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서 자신이 선택한, 혹은 학습되어지거나 길들여진 모종의 세계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의식에 대한 성찰의 과정은 '환원(reduction)'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현상학의 '환원'은 단순히 무조건적인 배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환원은 의식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특정한 현상(사상)으로부터 의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해명해 나가려는 과정으로 일종의 의미 탐색의 수순이나 절차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van Manen, 2001; 이근호, 2006 재인용). 현상학에서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

안 당연시 되어 왔던 ‘전반성적 의식’의 여러 가지 전제들을 자각하고 이를 재검토 하고자 하는 목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판단중지(epoche)’는 아무 생각도 안한다거나 그동안 사고해 왔던 것들에 대한 전제들과 입장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입장을 잠시 붙들어 둔다는 유보적 개념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본질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상학적 기본입장이다(고진호, 2010).

질적연구자는 진리란 존재자들의 생활세계 속에서 다양한 실존체의 맥락에 따라 구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여긴다(전가일, 2014). 그런데 본 연구를 위해 나의 삶의 맥락에서 영성을 제거한다면, 이는 마치 실증주의적 견지에서 객관적인 데이터 추출을 위한 일종의 처치와 다를 바 없다고 여겨졌다. 한발 더 나아가, 오히려 나의 기독교적 세계관은 본 연구에 필수적인 면이 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존재 물음을 던지고 ‘자신입’의 본질을 끊임없이 재형성해가는 되어감(becoming)에 있어서 영성은 중요한 맥락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입관은 연구를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선입관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물음 자체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선입관에 고착되거나 판단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동안 연구자는 자신의 선입관을 명료화하고 묶어두어야 한다(박세원, 2013). 이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과 삶에 대한 사고와 관념의 틀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점검하며 유보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나의 자연스러운 생활세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되 나의 주관적 관점의 오류 가능성에 대해 의식하며 전반성적인 태도로 계속 성찰하며, 그 가운데 세계를 새롭게 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은 극복되어야 할 문제인 동시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연구의 깊이를 더해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미로슬라브 볼프(2012)의 말처럼, 인간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고 아는 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특정한 관점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영원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확신 속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론을 찾아 고투하면서 깨닫게 된 또 하나는, 질적연구방법이란 원래 어떤 정형화된 형태로 고착됨을 지양하고 각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연구방법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다. 후설은 학문의 내용이 방법이나 기술로 기계화되고 상징화 될 때 그 원래적 통찰 및 성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우려하였다(유혜령, 2012). 질적연구의 특징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이론 체계에 얽매이지 않은 개방적인 태도에 있다(van Manen, 1994 ; 전가일, 2014 재인용). 연구방법 또한 기존의 방법에 얽매이거나 맹목적으로 따르기 보다는 연구주체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모색해나간다. 질적연구는 대상에 대한 탐구를 계기로 자신을 성찰하고 변화시켜가는 일이며, 질적연구에서 안다는 것은 정보의 단순한 누적이나 기존의 관점 강화가 아니라 연구자의 기존 사고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교육하는 일과 닮아있는데, 질적 연구를 한다는 것은 교육을 스스로 실천하는 일이며(서근원, 2013), 그 자체가 교육적 향상을 초래하는 교육의 지향과 맞닿아 있는 교육의 과정이다.

따라서 나는 본 연구를 통해 나의 세계관, 종교관,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으로부터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쩌면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를 진리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는 유아독존적 착각으로부터 경종을 울리고, 본질에 한 걸음 다가서는 교육적 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의문이 들었다. 현상학적 방법으로 진리스러움을 찾아가는 지향은 결국 현상학

자들도 진리라는 것이 있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닌가? 에 대한 혼란이었다. 이에 대해 몇몇 현상학자들과의 대화로 깨달은 것은, 그들이 일점의 진리는 없다고 보는 관점은 상대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주의와는 또 다른 철학적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현상의 본질은 서로 각각 떠다니는 부포와 같은 것이 라기 보다는 공적 영역에서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지평의 융합을 이뤄감으로서 본질(진리스러움 truthful)을 찾아가는 것으로 여긴다.

(2) 이론적 지평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은, 여러 이론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증법적 지향을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아 가는 길목에서의 '지표'와 같다는 것이다. 나는 연구 진행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온 여러 선진들의 글을 접하게 되었다. 각기 다른 지적 전통과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서로 통하는 일치점들이 있음에 주목하게 되었고, '모든 토대는 서로 통한다. 원칙들은 서로 같다'는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양주(1923/2013)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다. 물론 여기에 담긴 학자들의 사유는 나의 견지에서 해석된 것으로서 내 이해의 수준에 제한된다. 그렇지만 내 연구가 의도하는 바는 그들의 사유를 얼마나 치밀하게 따라가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중심을 잡아가며 나의 실존적 언어를 의미화하고 내가 머물러야 할 곳과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가 하는 것이다.

조용환의 문질빈빈의 질적연구 방법론, 후설의 현상학, 가다머의 지평의 융합, 파커팔머의 교육의 영성, 미로슬라브 볼프의 이중보기, 박세원의 존재론적 연구 등 가운데 그들은 서로 각기 다른 용어로 달리 설명을 하지만 같은 지향점이 있다. 즉, 그것을 그것답게 만드는 가장 전형적인 본질을 찾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열망, 왜곡된 질(質)적인 본질을 되찾아내고, 존재자적 질서 너머로 들어가서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싶은 본능이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는 방법으로는 대화를 통한 상호주관성과 공감적 타당성을 제안하고, 질적 해체(deconstruction)와 문적 재구성(reconstruction)을 통한 구성- 해체- 재구성의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지향한다.

이처럼 타자와의 지평의 융합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이 보다 고차적이고 명료화된 관점으로 종합되는 대화의 실현은 현 시대에 있어서 의문들을 해결하고 진리를 탐구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적합한 방법으로 보인다. 나에게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정의 자체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구분된 것'임을 아는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토머스 네이글(Thomas Nagel, 1986)의 말처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아무리 확장해도 언제나 파편적일 것이며(미로슬라브 볼프, 2012), 인간존재에 대한 어떤 해석도 다른 연구가 보완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할 수는 없음(조용환, 1999)을 아는 것이다.

(3) 현상학적 연구와 자서전적 연구 방법

인식 주체와 대상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진리의 모습이 더 잘 포착된다고 보는 현상학적 인식론은 실증과학의 객관주의의 경향으로 자연과 인간 삶의 실증화시킬 수 없는 부분까지 사물화 하는 학문적 위기 속에서 탄생되었고, '사태 자체로'라는 격률과 함께 모든 질적연구 방법론의 공통적인 사상적 토대가 되어 왔다(유혜령, 2012).

현상학적 환원의 원리들은 어느 정도의 순차성을 지닌 절차적 단계들로서, 개별 경험현상의 '특수성'으로부터 구체적이고도 '보편적인' 본질을 찾아가는 변증법적 탐구 속에서 연구자의 주의 깊고 세심한

성찰과 직관적인 본질연관을 이루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이근호, 2007). 이를 위해서 편견이나 선입견, 통념, 사전 전제나 이론적 믿음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거나,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고백하기, 반성적으로 고찰하기 등으로 다양하게 실천될 수 있다.

교육학영역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개발한 반 마넨(van Manen, 1994)은 연구자의 존재됨에서 비롯되는 성찰과 사유능력이 교육학적 현상학 연구의 특성이라고 본다. 그는 연구 주제인 특정 현상을 지향하는 연구자 개인의 '존재론적 지향'을 강조한다. 곧 현상에 대한 얕은 문제가 인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됨의 문제, 즉 존재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용기, 1996 ; 유혜령 재인용, 2012). 현상학적 연구에 있어 연구의 전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연구자의 존재론적 지향을 통한 연구자 자신의 사유 능력과 성찰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 자신을 1인칭 '나'로 지칭한다. '나'는 고립적이지 않고 항상 상호 주체적인 존재이며, 논의의 주체가 부분적인 필자, 조사자, 관찰자 등이 아니라 생활세계와 연구세계를 부단히 오가며 항상 이미 두루 살고 있는 온전한 사람인 '나'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논의의 책임 및 권리 문제가 연구자라는 부분적 정체성 혹은 부분적 활동으로 감환할 수 없는 전인격적 주체로서 '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질적연구는 온몸으로 하는 것으로서, 내 몸이 그렇게 살고 내 몸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송두리째 '나'여야 한다(조용환, 2014).

현상학적 연구는 흔히 연구자 자신의 존재가 강렬하게 지향함을 드러내는 글쓰기 형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 자신을 '나'로 지칭함으로써 지향성의 개념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연구자가 직접 체험한 삶의 경험을 배경으로 학문적 탐구의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자전적 맥락 (autobiographical context)을 연구에 소개하며, 자신이 어떻게 존재론적 지향으로 이 연구를 '살아내기 (lived through)'를 했는지 표현하기도 한다(유혜령, 2012).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함에 있어 현상학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상학적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연구자 스스로의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자신에 대한 탐구로 진행되는 자서전적 연구방법을 이용하는 자서전적 연구이기도 하다.

개인적 기억에 의존한 구술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관련되었다. 그러나 모리스 알바시가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계급적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생활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게 되었다. 즉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구술과 서술 방식의 내러티브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넘어 사회적 구조와 제도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경험과 삶의 의미는 한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확장 가능한 것이 되었다(최성광, 2014).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의미 있다는 인식이 한국의 질적 연구에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성열관, 2005; 이희용, 2007; 박순용, 2010; 이동성, 2010 ; 이혁규, 2012. 재인용). 자기연구는 연구 대상의 초점을 '타자' 또는 '지식'에서 돌려 '나'는 어떠한가를 바라보게 한다. 이는 반성이나 성찰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호명해 내고 주체에 대한 자기 성찰을 철저하고 급진적으로 진행하려는 방법적 요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연구자는 자신의 몸들을 부단히 반성해야 한다. 자기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늘 열어놓아야 한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자신이 속해있는 주변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전체로서 나를 인식하

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이혁규, 2012).

‘나’라는 말은 이미 ‘너’라는 말을 가지고 있다(Buber,1923/1979; Heidegger, 1927/2008 ; 박세원, 2013, 재인용). 너라는 말은 넓게는 세상으로 보아도 좋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특정의 사람, 사물, 시간, 공간, 그리고 사랑과 같은 추상적 언어(혹은 개념)도 포함될 수 있다. 하이데거의 믿음처럼 ‘나’는 언제나 세상속의 나이다. 아무리 소통이 부재한 사람일지라도 ‘나’라는 말을 내뱉는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너와 깊이 꿰어져 있다. 나는 너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그 존재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 즉 너는 신체적으로는 나와 떨어져 존재하더라도 언제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내 존재 깊숙이 파고 들어와 꿰어져 있다(박세원, 2013).

자서전적 연구는 스스로 자신을 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학자들의 관심밖에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에게 깊은 성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개인 체험 중심으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하다. 자서전적 연구는 연구자 자신이 연구자로서 가진 다양한 능력들(이해력, 분석력, 상상력, 창의력)을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여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맥락을 주제로 의미를 도출해간다. 자신의 삶의 이력을 독자들에게 노출함으로써 개인 이야기의 진실성을 공유하고 진정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성찰적이다. 그러나 자기 경험을 초월하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의미를 드러내야 한다. 이는 자기경험을 일반화하기보다 자기 체험의 깊은 분석을 통한 사회문화적인 통찰력을 나누는데 의미가 있다.

(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탐구가 존재의 양상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 있으려면 방법적 엄밀성을 필요로 한다. 은폐되어 있는 존재양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충분히 드러내는 것을 탐구의 참됨성이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이를 진정성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자료는 진실성, 정확성, 풍부성의 성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진실성은 존재 양상이 원래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정확성은 존재 양상이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자료를 적시 적소에 수집하는 것이며, 풍부성은 온전한 의미를 드러낼 만큼 충분하게 수집된 것을 뜻한다(박세원, 2013).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는 2009년도부터 큐티(QT-quiet time, 경건의 시간) 패턴을 바꿔서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구독해왔던 큐티 교재들을 끊고, 오직 성경 본문만 들었다. 하는 방식은 매일 아침 구약 한 장과 신약 한 장 총 2장씩 차례로 읽어나가고 묵상하면서 그날 하루 동의 삶에서 적용할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말씀구절과 함께 간략히 적는다. 하루를 지내고 그날 밤에 평가를 하는데 이때 일기형식으로 노트북에 꼼꼼히 적는다. 이러한 평가는 점점 나의 경건생활의 핵심이 되어갔다. 사실 처음에는 적용까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걸로 마치는 것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말씀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었는지, 말씀대로 실천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지 중요하게 느껴졌다.

큐티일기(이하 경건일기)는 2009년도에 간헐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점점 횟수가 많아지더니 2011년도부터는 매일 쓰게 되었다. 현재 오늘까지 A4용지 10포인트로 1,889페이지 이다.

본 연구의 연구 자료는 이 경건일기이다. 그 중에서 2012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의 만 2년 동안의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 시기로 한정된 이유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하늘대학교(가칭)에서 ‘스포츠와 윤리’라는 수업을 하던 시기로서, 그 수업에 관련된 가르침과 배움의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2012

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본 연구의 주제들을 잡아가기 시작해서 연구문제들을 찾고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가는 고민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는 내 삶의 다양한 국면에서의 모든 면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좁혀 가르침과 배움에서의 영성적 측면을 보기 위함이다.

만 2년간의 경건일기는 총 673편(926 페이지)이며, 그 가운데서 교육과 연구에 관련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텍스트는 학교 수업에 관한 내용 60편, 연구에 관한 내용 47편으로 총 107편(141페이지)이다.

질적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자료 해석의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순환적인 것이다. 본 연구도 해석과정에서 다시 자료 수집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게 되었고, 선정된 자료 외의 것들도 전후 맥락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다. 한편, 자료 수집 방법에서의 신뢰성, 적확성, 풍부성에는 충실하고자 했으나 문서자료 한 가지로 한정되었다는 점에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는다.

자료의 분석은 코딩-범주화-목차화-글쓰기의 반복적인 순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를 거듭 살펴 보면서 주요한 공통점, 차이점, 규칙성, 패턴 등에 주목하며 주제, 개념, 사건들을 코딩하고 이를 토대로 범주를 설정한 뒤 범주를 중심으로 다시 코딩하고 이를 토대로 범주를 수정하였다. 스트로스(Strauss, 1987 ;송수진, 2013. 재인용)의 구분을 빌리자면 개방적 코딩(open coding)-범주화-중추적 코딩(axial coding)-범주화-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의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범주화가 뚜렷해졌을 때 이를 토대로 간략히 글쓰기를 해 보았다. 글쓰기 과정을 통해 범주의 부적합이 드러나면 또 다시 코딩 작업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

박세원(2013)에 의하면 해석에는 자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의미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미화하는 ‘창의성’이 요구되며, 동시에 자료가 말하는 것에 철저히 근거하고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관계성에 대한 온전성을 항상 견지해야 하는 ‘엄밀성’도 요구된다. 따라서 스스로의 언어와 힘으로 의미를 생성하는 ‘창의성’과 자료가 말하는 근거와 온전성으로 되돌아가는 ‘엄밀성’간의 변증법적 순환을 이어가야 노력했다.

분석 작업 가운데 기술과 해석을 순환적 하면서 나의 개인적 배경에 따라 형성된 불가피한 시각의 주관성 속에서 나는 제한적이고 왜곡되어 있음을 인지하고자 했으며,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를 번갈아 물음으로써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 것을 바탕으로 연구 이전에 나는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자신의 선입관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나의 생각은 어떻게 다시 재구성되어 변화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찰하며 평가를 하고자 했다. 이렇게 새로운 봄을 반성하는 해체와 재구성을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쉽지 않았음을 고백한다. 덧칠해진 온갖 종류의 영향력들을 한꺼풀씩 벗겨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애씀 필요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과 나의 역량의 한계를 절감했다.

그러나 나의 해석을 내어 놓는 작업은 조용환(1999)의 표현을 빌면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일과도 같다. 나의 해석은 수많은 잠재된 해석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누가 보아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독자들도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 이는 서두에도 밝혔듯이,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는 무엇을 증명하고 규명하는데 있는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들 사이에서 더 나은 우리의 이해를 찾고 도모하고자 함이다.

3. 경건생활과 경건일기의 양상

나의 경건생활은 경건일기를 통해 그것이 무엇이며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경건일기는 말씀으로 여는 하루로서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말씀으로 닫는 하루로서 ‘정말 그렇게 실천 했는가’ 하는 반성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다.

2012년 5월14일 큐티 욥기 32장, 히브리서 8장

* 말씀으로 여는 하루

① (욥32:9)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묵상: 엘리후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나서지 않으려 했다가 드디어 폭발(?) 했다. 욥과 친구들에게 화를 냈는데,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해서였고, 그 친구들은 자신들도 잘 모르면서 욥을 정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지혜와 깨달음은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감과 은혜로 되는 것이라 했다. 내가 윗사람을 대할 때에 존경은 하되 아침을 위한 비굴한 조아림은 없도록 해야겠다. 또한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 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으니 존중해야겠다.

② (히8:6,12)

6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12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묵상: 처음 것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외려 더 좋은 것을 주셨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주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증거이다. 사랑은 받아본 자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초점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오늘 수업인데 너무나 미안하게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밤을 새서 할 줄 알았는데 쓰러져 자고 일어나니 시간이 부족하다.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학생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주님, 지혜를 주소서.

* 말씀으로 닫는 하루

학교에 가는 길에 전화가 왔다. 오늘 과제발표를 맡은 학생인데 아프다고 못 온다는. 이게 말이 돼? 나 같으면 죽더라도 학교 갔을 것이므로 화가 나려 했다. 오늘 말씀을 생각했다.

‘긍휼히 여기고(히8:12)’

말씀대로 긍휼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정죄하지 않고 이해해주려고 노력했다. 또한 어제 밤새 과제검사를 해야겠다는 생각과는 달리 잠을 자버려 엉망진창인 상태로 수업에 들어가게 돼서 속상했지만, 내 자신도 긍휼히 여겨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을 평안히 했다.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혜와 도우심을 구했다. 학생들이 주말 내내 팀플을 하고 과제를 제출하느라 고생을 할 때, 나는 (비록 부산에 있는 교회 집회를 섬기러 다녀온 것이지만) 바닷가에 가고 과제검사도 못하였으니 전체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서 줬다.

자칫하면 강의도 늦을 뻔해서 무척 바빴는데, 만약 늦더라도 내 자신을 괴롭히지 않고 정죄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다.

또한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욥기32:9)' 말씀을 생각하며 학생들의 말에 최대한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보니 팀별 발표할 때 학생들에게도 다른 친구들을 평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마음이 들었고, 모두 함께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의 말씀이 없었다면? 밤새 할 일을 두고 쿨쿨 잤으니 일어나서 머리를 쥐어뜯었을 것이다. 학교 늦을까봐 난리법석을 부렸을 것이다. 발표해야 할 학생이 아프다고 학교 못나오겠다고 했을때 흥! 하며 정죄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동료평가를 하게 할 아이디어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이다. 전체에게 초컬릿을 주지 않았을 것이며, 여유 없는 바쁜 수업이 되었을 것이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건일기의 형식은 오랜 시간을 통해 아주 조금씩 변해왔다. 내용은 그날 그날에 따라 목상이 길어질 때도 있고, 목상한 내용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또한 평가는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크게 낭패하는 날들도 많다. 그러나 비교적 장기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말씀 실천의 삶이 누적됨으로 인해 나는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매일이 분투와도 같았고, 때로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결국엔 이것이 현재의 나에게 가장 최선책이라는 것을 깨닫곤 했다.

(2014. 6. 5. 경건일기 중에서) ... 나의 이런 변화가 사실, 무서웠다. 나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단 먼저 분노 한번 폭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찾으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느라 질질짜고 욱욕비틀고 나서야 겨우 간신히 정리가 되는게 나의 매뉴얼인데,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스스로 바로 알아서 기다니. 사람 기질은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했는데, 기질도 바뀔 수 있나보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속상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게 던지는 질문이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하다. 아마 큐티를 하게 되면서부터 아니었을까? 그리고 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자 했으며 그것을 기록하면서 깊어졌다. 당장은 결과가 없는 것 같아도, 나의 일상에서 말씀의 열매는 맺혀져 가는 것은 분명한 듯싶다. 나를 바꿔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린다. 오늘도 어리석은 내 감정대로그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주심에 감사드린다.

처음에는 율법적인 면도 있었다. 그대로 안하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다. 나를 참 많이도 북아치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깨달아가는 점은 그 안에서 나의 의, 편견, 선입관으로 고착화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경건일기에는 그러한 고민과 시행착오의 궤적들도 함께 그려져 있다.

(2013.2.7) 내가 매일 붙드는 큐티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검으로 삶에 작용되는지 잘 알면서 한편으로는 이것 역시 나의 의를 주장하려는 모습은 없는지 두려웠다. 마치 포춘퀴치처럼, 오늘의 운세처럼, 내가 받는 매일의 말씀을 전략시키는 일은 정말 하나도 없는 것인지 너무 무서웠다. 그 모든 제

한을 뛰어 넘을 수는 없을까.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나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으로 잠겼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2013.5.16) ... 고착화된 습관이나 강박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을 받도록, 내가 쥐어짜서 결론 내리고 반드시 하루의 단위안에 그 말씀으로 끝장을 보리라는 고집은 더 내려놓기로 다짐하게 되어 감사했다. 이제는 내가 하는 방법만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각자의 방법과 스타일과 은혜가 있음을, 다만 나의 방법은 현재로서의 나에게 최선의 것임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외식만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될 우려가 있는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하다.

(2014.2.12.) ... 그리고 나를 돌아보니, 내가 왜 우울한지, 무기력한지 알 것 같았다.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경건생활을 우선순위에 두고 바로 서보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몸부림 치고 온 에너지를 쏟아도 왜 더 힘이 드는지 알 것 같았다. 가려진 내 눈을 걷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독히 교만했고, 율법적이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었는데 거기에는 자꾸 뭔가가 첨가되는 것이다.

(2014.6.2.) ... 내가 이렇게 한 까닭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고민 때문이다.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혹시 나는 은혜가 아니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나만 정당'이라는 오만한 착각에 빠지지 않기 위한 건전한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에 답을 주시길 기도했다. 그리고서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 내 억지스런 힘이 아니길 바라며 지내보고자 했다. '...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1:29)' 말씀대로,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가면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을거야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다. 게으름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말씀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마음과 머리에 무슨 뽕 하고 구멍이라도 뚫린 듯 했다. 나는 이제 답을 얻은 것 같다. 기도할 땐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행할 땐 100%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기도했다고 내 할 도리 다했다며 힘 빼고 있으면 그새 또 누가 틈을 노리는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선하고 건전한 것으로 흐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껏 하던 대로 강박의 수준으로 큐티하고, 노트에 적은 말씀을 수시로 꺼내보고, 거의 닭달의 수준으로 몰아치기로 다짐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고 또 치는 것뿐이다. 단, 그것이 율법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며, 나의 어떤 점들이 부족한지, 나는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에 더 깨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말하고자 함은 나의 경건생활이, 경건일기가 좋다 혹은 나쁘다가 아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진리는 논의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실천되어야 한다'는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말씀을 아는데 그

치는게 아니라 일상의 실천이(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투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의 이야기는 타인에게도 소통되어 간주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한 자신의 한계 내에 갇힌 불안정한 체험에 불과하게 된다. 주관성의 약점인 유아지론(solipsism)의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진리체험의 보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 즉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e)을 얻어야 하며, 내가 일기로 써서 공유하거나 나누는 일은 그러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연구의 장으로 가져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4. 경건일기의 구조

본 자료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분석되었다.

(1)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의 수업하는 이유와 근원적 힘은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했다.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고, 사랑하기 위해 가르친다는 것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2012.3.16) ... 학생들 레포트에 대한 피드백을 한명 한명에게 일일이 편지글로 쓰고 있기에 너무 많아 질리고 지쳐서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4:10,17)'을 다시 보면서 생각했다.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지. 다시 마음을 잡고 계속 하였다.

(2012.3.17) ... 십자가는 사랑이다. 거창한 이념, 체계, 포교, 행동지침, 전략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바보가 된다는 것이다. 진리는 결국, 사랑 아닌가? 그게 전부 아닌가? 사랑이 희석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무의미하다. 오늘 종일 바빠 지내다가 늦은 밤에 수업준비를 하는데 힘들어서 짜증이 났다. 오전에 깨달았던 말씀을 다시 묵상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5:20)' 화목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내가 받은 것을 기뻐해야한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기쁘게 드리고 싶은 것이다. 학교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너희가 열심히 달음질 하지만 향방 없이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표지판 없이 살지 말라, 고 했으면서, 정작 나의 달음질에 대한 포커스가 빛나가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2012.3.18) ...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집에 와서 수업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쉽지 않았다. 지치고 하기 싫었다. 그러나 '내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이것도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 스트레스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라는 생각으로 빨리빨리 전환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깨끗함, 지식, 오래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여서(고후6:6,7) 학생들을 부

요하게 할 소망을 갖고(고후6:10) 진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도와주실 것이라 믿으며 보낼 수 있던 은혜에 감사하다.

(2012.6.13. 수업일지중에서) ... 주님은 학생들에게 매력을 찾으라 하지 않으셨고,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으라 하지 않으셨고, 사랑하라 하셨다. 돌이켜보면, 학생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어주려고 애쓰고 또 애를 썼는데 이는 학생들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웠던 것 같다.

(2) 기도와 도교로 하고

나는 가르침이란 자신의 깊은 진실에서 나타나오는 것이며, 학생들의 내면에 있는 진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학생들이 아무나 우연히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특별하게 뽑혀 보내졌다고 생각했다. 수강신청 기간부터 꼭 만나야 학생들 보내주시길 기도했다. 학생들 사진을 출력해 붙여놓은 출석표를 들어가고, 틈틈이 보며 이름을 외었다.

수업 준비에 기도와 도우심을 구했고, 수업 중에도 계속 도우심을 구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고, 나의 능력으로는 가르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으며, 초보 교수자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늘 좌불안석이었기에 그래서 기도했다.

(2012.3.19) ... 기도를 드리고서 내 본성에 충추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하고자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나의 낮아진 마음 때문에 수업에도 큰 은혜 주시리라는 마음이 들었다. 처음에 학생들은 내게 접속해 들어오지 않았고, 내 말들은 공중 분해되었다. 그러나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수업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기술보다는 진심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수업 진행 순간순간에도 기도했고, 미리 예정되지 않았던 지혜까지 떠올라서 수업은 내가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더욱 깨달았다.

다 끝나고 학생들이 다 나간 텅빈 강의실에서 감사드렸다.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학생들의 반응에 노심초사하며 정신 팔려 있었던가. 수업을 준비하는 그 절실함과 타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은혜이며, 수업 현장에서 나의 힘을 빼고 인도함을 받는 신비한 체험과 학생들의 영혼을 만나고, 지혜를 채워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다. 강의실이 예배당 같고, 학생들이 성도들로 보이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럴 수가 있구나. 아니 이래야 하는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교회와 세상의 통합된 삶의 모습은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 질 수 있겠구나. 가르침에 대한 은사가 없는 부족한 자인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니 도와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2012.3.29) ... 학교 수업 시작 바로 전에 하나님께 '주님, 학생들 제게 붙여주셨으니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로 사랑으로 섬기고 수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갈4:19) 도와주세요' 기도 드렸다. 기도를 하고 나니 학생들을 보는 내 눈은 하트가 되었다. 지난 수업 때 내가 부실하게 설명했던 것을 사과하고 다시 잘 설명해주었고,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얼굴은 환하게 켜진 등불 같았다.

(3) 예배 하리라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공부, 일, 가르침, 연구, 봉사 등은 모두 하나님께 드러지는 예배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다. 물론 그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예배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전 존재에 흐를 수 있을 것이며, 수업도 예배, 논문도 예배,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더 많아졌다.

(2012.3.25.)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 문제에 압도되어 본질을 놓쳤다. 바로 다음날 있을 수업준비가 안되었다는 생각에 허영게 질렸던 것이다. 아니, 지난주 그렇게 절절히 깨달았던 '수업은 축복의 통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예수님만 자랑되는 복음전파의 채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생각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말씀을 깊게 묵상 못하고 겉핥기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고후13:4)'는 엄청난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건 그거고, 수업은 수업이지라는 생각이었다. 삶과 신앙이 다시 분리되어버렸다. 함께 하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보다 내가 해야 할 준비와 짐들에 눌려서 허공을 치는 힘겨운 싸움을 했던 것이다.

(2012.9.11) ... 성경적인 세계관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한다며 열심히 책과 논문들을 읽었다. 그런데 자꾸만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으니,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사탄이 걸고 들어오는 쪼다의식이었다. 그렇지만 꼭 참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요4:50)' 오늘 말씀처럼 믿고 간 그 시점부터 나음을 입을 것을 믿었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4:23)" 말씀에, 연구도 예배이며 따라서 영과 진리로 연구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 영이 아니면 지식의 근본을 알 수 없다. 그렇게 때문에 오늘의 연구는 영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며 든든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후딱 지나갔고 별 진전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로 드러지는 날 되기를 소원하며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4)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왜 어떤 수업은 죽을 썩고, 어떤 수업은 활활 나는 것일까. 나는 늘 동일한 마음으로 수업을 하고자 하는데, 왜 매학기 매 시간마다 다른 것일까. 나는 수업이 잘 안되면 자격지심으로 완전히 땅끝으로 들어가버리는 것 같았고, 수업이 잘 풀리면 의기양양하여 뽕뽕대었다. 나의 이런 양극화된 모습은 내가 학생들의 반응과 호응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다.

(2012.3.12) ... 하루치 수업을 준비하는데도 며칠이나 걸렸고, 그나마 가장 잘 준비됐으리라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현장은 너무나 만만치 않았다. 학생들과 이심전심의 단계로 가기까지는 시간을 요하는 일하기에 당연히 쉽지 않으리라 예상은 했지만, 학생들은 거의 무반응에 나를 투명인간처럼 보는 것 같았고 엄청 낮가림을 하는게 느껴졌다. 수시로 오늘 주신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

게 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전16:13,14)'를 붙들었다. 말씀덕분에 학생들이 사랑스러웠고 평안하고 감사하게 수업은 마쳤지만, 집에 와서 거의 쓰러졌다. 내가 하는 수업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될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큰소리는 쳐 낚는데 다음 수업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등등 힘들었다. 게다가 그들에게 해준 말들이 내 몸에도 스며들어, '너는? 정말 너도 그렇게 하고 있는거냐?' 라는 생각으로 괴로웠다. 말씀을 의식하며 강건하고 사랑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적 불안과 강박으로 탈진했던 것이다.

(2012.3.26) 오늘 말씀에 '나를 두렵게 하고자' 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온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정체는 무엇인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형편없는 강의를 하게 되면 어쩌나. 좋은 교수자가 되지 못하면 어쩌나. 나의 사명을 제대로 못 이루면 어쩌나. 나의 존재가치가 땅에 떨어지면 어쩌나. 학생들에게 실망을 주게 되면 어쩌나. 욕을 먹게 되면 어쩌나... 자, 이쯤 되면 벌써 정체는 밝혀진다. 두려움의 정체는 바로 자기중심성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1:10)"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작업들이 중첩되면서 나는 점점 더 내가 두려워야 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다.

(2012.4.2.) 말씀의 '화평'과 '평안'이 온종일 붙들어주었다. 수업 준비를 하면서도 한없이 평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나를 새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심이었다. 내가 불안하고 짝 놀려있다면 나 자신이 힘들 뿐 아니라 주님도 너무나 속상하실 것이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온 힘을 주면서 살고 있었구나. 힘은 줄 데 주고 뺄 데는 빼야 하는 법인데.

수업하면서 좀 버벅거리고 학생들 반응은 영 떨떠름한 것 같았지만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기에 내가 해야 할 바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억측과 공상으로 이 기쁘고 가벼울 수 있는 삶을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눌러버리곤 하는지 깨달을 수 있었고, 말씀이 지켜주심에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2012.6.1) 다음 주 월요일 수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우심을 구하다가 불현 듯 이런 마음이 들었다.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니? 사명을 이만큼이나 잘 감당하고 있다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거 아니니. 무슨 일이든지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아니니.' 깜짝 놀라 옆드렸다. 행여나 그런 외식적인 마음은 단 0.1%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 태워달라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제가 뿌린 씨앗이 돌짜에 뿌려지고 가시나무위에 뿌려진다 하더라도, 단 한명의 학생도 경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난받고 불평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런 영광을 바라보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벧후 3:14) 오늘 말씀대로 될 것 같았다.

(5) 내가 달려갈 길

① 가르치는 길

나는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평생 생각해왔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왜 하는지를 계속 물었고, 불안할 때나 힘들 때나 견딜 수 있는 힘은 소명이었다. 나는 학생들을 마치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으로 대하려 노력했다. 진리가 일상과 분리되지 않기를 소원했고, 직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최전선의 일이라 생각하며, 수업하는 것은 나의 직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고, 소명이기를 소원했다. 가르치는 일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 되어야만 한다는 확고한 생각에 부합되어 서서히 조용히 합쳐지는 느낌이 좋았다. 그 일을 통해 내가 그토록 찾고 싶은 '나다움'에 안착하는 것 같았다.

(2012.4.3.) ... 학교 과제 점검과 강의준비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되게 하고자 하는 일이므로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2012.6.25. 수업일지 중에서) 한 학기는 이렇게 지났다. 처음 학기를 시작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의문, '정말 가르친다는 일이 내게 잘 맞는 일인가?' '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어느새 하나도 없어졌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맞네 안 맞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나는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학생들이 빛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돕기 위해 가르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가르치는 일에 나의 전 존재, 영혼을 건다는 사실이다.

② 연구하는 길

하지만 연구를 한다는 것은 달랐다. 논문은 사명 때문에 해야 한다고는 생각했으나, 나와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굴뚝같았다. 진인미답의 길을 가는 듯한 고통 속에 산악인 라인홀트 메스너에 대해 쓴 김훈(2007)의 글이 자주 생각났다. '길은 어디에도 없다. 앞쪽으로는 진로가 없고 뒤쪽으로는 퇴로가 없다. 길은 다만 밀고 나가는 단독자의 내면을 완성한다...그는 자신과 싸워서 이겨낸 만큼만 나아갈 수 있었고 이길 수 없을 때는 울면서 철수했다.'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러나 그때마다 포기하라는 말씀은 늘 없었다. 다시 힘을 내고, 견디고, 버티면서 오늘까지도 버티게 되었다.

(2012.12.11.) 오늘도 힘들었다. 노를 젓고 있는데 반대편 해안이 가까워지지 않는다. 떠난 해안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오도 가도 못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 바다위에 붕 떠 제자리에 뱅뱅 돌고 있는 상태.

일주일 전에 마구 광광 엉켜 몰라몰라 하고 논문을 덮었다. 그 일주일동안 마음은 얼마나 어려웠던가. 칼 같은 공허한 바람이 심 없이 불고 다녀서 뼈속에 구멍이 나고 있지 않나 싶었다. 덮어두었던 논문을 오늘 다시 펼쳤다. 멀미가 올라오는 것 같았다. 그래도 살살 고쳐나갔다. 아주 아주 조금의 진전이 있었다. 그런데 이내 현기증이 나고 울렁거렸다.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을 폭발하기 직전까지 참고 뽀루통하게 보내고 있는 것일까. 사명과 꿈과 보람과 목표와 기쁨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아8:6). 오늘 말씀을 생각했다. 분명 사랑과 사명은 죽음보다 강하게 실재하

는 것이다. 그런데 끔찍한 일은 내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이구나. 사명은 사랑 때문에 있는 것이다. 나의 사명에 사랑이 없어졌구나. 내 삶의 불성실함에 하나님께 죄송했다. 이랬다저랬다 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미와 위로를 찾으려는 방향에 죄송했다. 그리고 주일설교 말씀, 지금의 고통이 사명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견디고 견뎠다. 견디다 보니 하루가 갔구나.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과정 과정 마다 내가 어떠한 태도로 견디고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과 자세로 변화되어 가는가가 관건이다. 나의 왼발은 고통, 오른발은 사명이라 말하며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지만 오늘도 쓰러지지 않고 은혜로 붙들어주심에 감사하다.

(2013.2.1.) ... 그러나 잘 되지 않았다. 논문 진도는 안 나가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하기 싫었다. 말씀 말씀

"...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11:3)"

내가 전파하려는 것은 세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다. 보이는 것들만 인정하는 이 세상에, 세상의 모든 지성이 파악하고 인식하는 역량을 넘어서는 '진리'에 관한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보이도록 증거 해야 하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고 절망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진도는 도통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능력 없음을 처절하게 절감하였다. 말씀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히11:13)" 믿음이란 것은 그냥 관념, 신념의 차원이 아니다. 그 믿음은 전 존재론적 문제이고, 생명과 직결된 것이며, 반드시 인물의 변화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믿음이 너무나 힘이 된다. 나는 그냥 믿음대로 뚜벅뚜벅 가리라. 이러다 죽어도,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도, 더 나은 본향을 멀리서 보고 찾는 자로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 것이다. 겨우 몇 줄 쓰고 말았어도, 아무리 바닥을 파도, 낱말과 문장더미에 깔려 눌러 있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골치가 아파도, 그러한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은혜주심에 감사하다.

(2013.2.20)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논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싶어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요일4:12)" 우리에게 사랑이 근원되지 않으면 모든 교육은 불가능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말해야 한다. 그동안 두려움에 떨었다면, 이제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떨어야겠다.

(2013.6.28.) ... 초지일관 확실한 열정으로 자신을 활활 태워가며 사명을 다하는 바울.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너무나 분명했다. 그래! 바울처럼 가는 거야. 좌절도 절망도 포기도 없이, 굳건하게

그런데 차라리 복음 전하는게 쉽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 어정쩡한 곳에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이려고 있을까. 삶따로 신앙따로 일따로 공부따로 교육따로 사상따로 따로 따로 분절된 삶을 통전적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의 길을 찾아 나섰지만, 길이 있거나 할지, 혹은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원래 이 땅에서의 삶이란 그런거라며 포기해야 하는 건지 막막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행14:22)"

우리 모두를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선지자로 부르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

로 부르셨다.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내 비록 지력이 심히 딸리고 참을성 없고 명철이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오늘은 길이 안보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는다.

5. 앎과 믿음과 삶의 통전적 차원에서의 영성의 의미

“연주자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연주자의 악기 속에도 없다.” 색소폰 연주자 찰리 파커의 말이다. 내 마음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연주하는 악기에도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에 대한 반응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연구를 하면서 연구자인 나의 눈을 끊임없이 반성하고자 했다. 나는 혹시 내 신앙과 믿음의 확고성에 대해 증명해 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이는 현상학적 자세가 아니며, 따라서 내 신앙적 신념에 대한 판단 중지, 환원을 통해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노력해야 했다.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진짜냐 가짜냐 옳고 그르냐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모종의 본질과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분명한건 본 연구는 나의 경건생활(영성)은 앎, 믿음, 삶의 차원이 분열되지 않고 통전적이 되게 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나의 경건생활은 경건일기를 통해 그것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경건일기는 나에게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자기 내면화 과정이다. 내면화한다는 것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삶의 자세와 가치관을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있고(살고), 어떻게 있을(살) 것이냐? 하는 존재의 물음으로 씨름하며 재개념화 되고 다시 살아내는 실존적 고투의 현장이다. 이는 앎과 믿음과 삶의 분열성에 대한 반성을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다. 경건생활을 통해 내 삶은 해체되고 재구성되면서 나는 조금씩 변화되어 갔다. 인간은 부단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형성하고 구성해 가는(becoming) 존재이다(조용환, 1999). 그렇다면 이러한 경건일기, 경건생활, 영성은 내 실존을 이뤄가는 핵이라 할 수 있다.

“거짓말이 왜 그런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기억난다. 그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서도 아니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이란 더 나은 인간형성의 존재론적 지향이라 한다면, 이는 참된 인간성의 회복, 사람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 다다르고자 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교육은 실존의 문제이고, 이는 종교와 닿아있다. 즉, 교육이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가고 있으며 가야 하는가? 하는 존재 물음을 묻고, 답하며, 되어가는 실존의 삶이다.

모든 연구 과정은 나의 성장과 연관되었다. 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떠한 배우는 자인가?”

제자라는 말에는 교육적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가르치는 자로서의 실존을 찾아가면서 나는 예수님

께 잘 배우는 자여야 함을 잊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가르침은 배움의 또 다른 시작이기도 하고, 잘 가르치는 것은 잘 배우는 것을 수반하므로, 배움의 자세는 가르치는 활동에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연구를 통해 '타자'에 대한 의미가 커져갔다. 내 경건일기는 나 혼자서의 내용이 아니라 타자와의 끊임 없는 상호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실존의 의미를 찾아가는 일이란 홀로 이루어 지는 일이 아니며, 각 실존체는 서로의 타자성에 공명하고 또 다른 실존적 존재의 되기의 가능성 속으로 들어간다. 송수진(2013)은 이러한 점에서 타자는 나와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또 하나의 주체요, 나의 또 다른 가능성이라 표현했다. 이는 앞으로 숙고해봐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를 통해 또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내가 매일 쓰는 경건일기가 현상학적 탐구였다는 것이다. 큐티를 하면서 경건일기를 쓰는 것은 나를 성찰하고 정리하면서 나를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고 재개념화 하는 변증법적 순환을 하며 성장하는 길이 된다. 또한 글로 써서 드러내는 작업도 독자 들의 지평과 조우해가며 서로간의 확대된 열린 해석을 지향하려 함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글쓰는 자는 자기 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더니, 쓰다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번뜩이는 영감을 받기도 한다. 물론, 하루를 성찰하며 자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변증법적 과정은 생각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은 글로 표현되고, 다시 그 글은 더 깊은 사고와 반성적 검토를 통해서 보다 정련된 형태로 성장한다(이근호, 2007). 생각만 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의 차이는 마치 등을 손에 만지고 있는 것과 등불을 켜서 하늘에 달아 놓는 것의 차이라고나 할까. 현상학적 탐구는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내면화하여 나의 실존적 삶을 이루도록 하는 좋은 도구적 방법이다. 매일의 삶이 현상학적 연구라니, 이에 관한 밀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선입관에 또 고착화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의 선입관을 다시 묶고 탐구하고 이해를 얻어, 그 이해를 기초로 이전의 선입관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순환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연구를 마치면서 생각해보니, 내 삶 곳곳에서 발생하는 간극과 분열의 불완전성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임에는 분명하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실존적 물음을 들고 존재를 이뤄가게 되니, 참 역설적이기도 하다.

6. 나가며

문득, 내가 하는 공부와 연구는 나의 경건생활과 필시 연관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앎, 믿음, 삶의 통전성에 대한 고민과 분투는 내 전 존재론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듯하다.

- 2013. 10. 4 연구 일지 중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다가 발견한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일 년 전인 당시 나는 지금과 같이 경건일기를 자료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뭔가를 감지하고는 있었던 듯하다. 내가 연구에서 고투하는 주제는, 내가 신앙생활에서 고투하는 주제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이는 서로 따로따로 달리 돌아가는 듯 해 보이지만 결국엔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될 것 같다고.

나는 박사학위연구의 주제를 2012년 여름에 잡게 되었다. 그러나 주제는 존재론적 문제인데 어떻게 영혼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실존적 존재를 말할 수 있을지 매일이 고통이었다. 현시대의 학문연구에

서 말할 수 있는 영성적 목소리의 위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돌파구는 정말 없을지, 매일이 상심이었다. 사실 본 연구의 시작은 그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아직도 나에게 풀어나가야 할 너무나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나는 진행 중인 학위논문에 대해 새롭게 눈이 열렸다. 역시나 표면위로 드러나는 빙산의 일각 같은 모습만을 다루기에는 나의 문제는 너무나 거대하게 그리고 깊숙이 있다는.

나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를 삶으로 보여주는 평범한 제자의 모습이다.

나의 소망은 그것이 그 무엇이든 그 어떤 분야든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이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분투하는 나의 이야기는

이제 점점 공적인 영역에서도 말해질 수 있는 때가 차가고 있는 것 같다.

- 2014. 10. 6. 본 연구를하기로 결정한 날 경건일기 중에서

참고문헌

- 고진호 (2010). “홀리스틱 교육과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 「홀리스틱교육연구」, 14(2).
- 김소현 정희숙 (2014). “한 중년 여성의 진로구성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교육인류학회 146차 월례발표회 미간행물.
- 박세혁 (2013). 「이해의 선물」. 서울 : 교육과학사.
- 서근원 (2013). 「공동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시대의 삶과 문화와 교육, 그리고 질적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 송수진(2013). “교육적 주체형성 과정에 관한 생애사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혜령 (2012). “현상학적 질적연구에 대한 오해와 이해 : 연구 논리와 연구 기법 사이에서 길 찾기.” 한국교육인류학회와 한국현상학회의 공동학술대회 미간행물.
- 이근호 (2007). “질적연구 방법론으로서의 현상학 : 보편성과 독특성 사이의 변증법적 탐구양식.” 「교육인류학연구」, 10(2).
- 이인경 (2006). “질적연구 담금질을 시작하며...” 「한국특수체육학회지」, 14(1).
- 이혁규 (2012). “교사의 자기연구(Self-Study) 필요성 탐색.” 「교육문화연구」, 18(2).
- 장유진(2014). “목동 엄마들의 분재 만들기 : 유아 사교육의 상황적 구조와 한계.” 「교육인류학연구」, 17(1).
- 전가일 (2014).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서 좋은 수업 만들어 가기 : 해석학적 질문과 대화를 통한 실행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7(2).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 교육과학사.
- 조용환 (2014). “좋은 질적 연구자가 되기 위한 자기 점검.” 한국교육인류학회 하계 워크숍 미간행물.
- 최성광 (2014). “박사과정을 수행하는 초등학교 30대 남교사들이 갖는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에 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7(1).
- 한혜정(2009). “한국 교사교육에의 적용을 위한 자서전 방법의 이론적 기초 탐색.” 「교육과정연구」, 27(1).
- A. G. Sertillanges (1923). La Vie Intellectuelle. 이재만 역 (2013). 「공부하는 삶」. 서울 : 유유.

- Annie Dillard (1974). *Pilgrim at Tinker Creek*. 김영미 역 (2007). 「자연의 지혜」. 서울 : 민음사.
- Heidegger, M (1927). *Sein und Zeit*. 전양범 역 (2008). 「존재와 시간」. 서울 : 동서문화사.
- Miroslav Volf (1996).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2012). 「배제와 포용」. 서울 : IVP.
- Parker Palmer(1993). *To Know As We Are Known*. 이종태 역 (2000).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서울 : IVP.
- Parker Palmer(1998). *The Courage to Teach*. 이종인 역 (2005).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서울 : 한문화.
- Pearcey Nancy (2004). *Total Truth*. 홍병룡 역(2006). 「완전한 진리」. 서울 : 복있는 사람.